

노년층 대상 교육의 변화를 통해 본 박물관의 역할 모색

- 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정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릿말

II.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분석
2. 사회와 개인의 변화

III. 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1. 노년층 대상 교육의 흐름
2.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

IV. 박물관의 역할 모색

V. 맺음말

노년층 대상 교육의 변화를 통해 본 박물관의 역할 모색

-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I. 머릿말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용산 개관 이전 일반·노년층¹⁾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던 프로그램(은하문화학교 등)으로 여러해 변화를 거쳐 2013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이라는 강좌명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과 전체 교육 중 회당 참여자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으로²⁾, 2018년 기준 회당 평균 600여 명이 참여한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대부분 성인들이 참여하며 그 중 60대와 70대 이상이 약 76%이다. 그리고 용산 개관 이전을 포함하여 참여 기간이 2년 이상 된 분들이 전체의 약 68%³⁾로 노년층의 꾸준한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 중 약 99%가 앞으로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방문자 중에서도 50대 이상은 꾸준히 약 10%를 차지하여 빠르게 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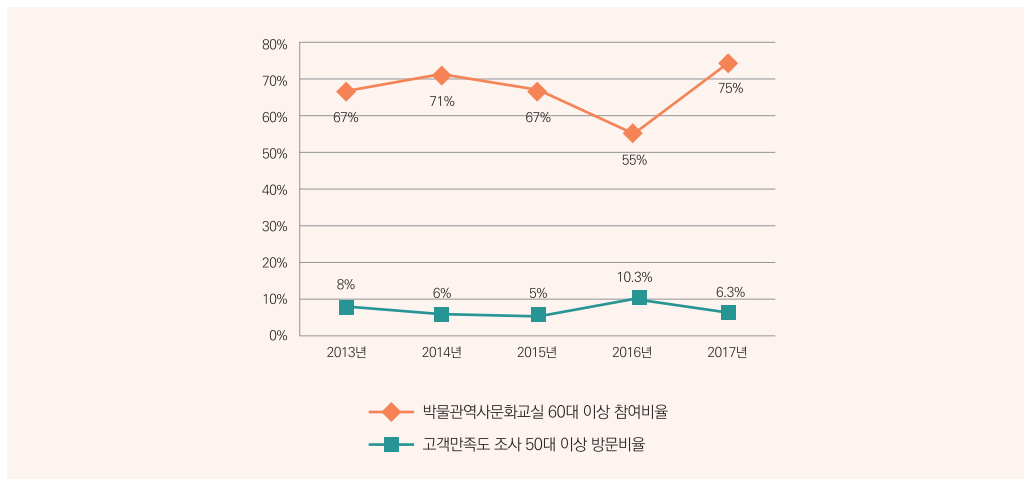
1) UN에서 정한 ‘노인’의 기준인 65세를 참고하여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함.

2) 2017년 국립박물관 연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준

3) 2017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결과 보고 자료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에 대한 대상 연구와 학습형태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층 대상 교육의 변화를 통해 박물관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노인 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흐름과 현황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이 긍정적인 노년기를 위해 중요한 매개체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도 1. 노년층의 교육 참여비율과 방문비율

II.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분석

박물관과 노년층에 관련된 앞선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지영(2004)⁴⁾과 홍숙정(2007)⁵⁾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활성화를 연구하였고 이지원(2010)⁶⁾은 박물관 성인교육 역사 연구 중 대상에서 노인을 분류하여 접근

4) 김지영, 「박물관의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홍숙정, 「박물관·미술관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이지원, 「박물관 성인교육 역사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하였다. 특히 이지원의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성인 대상 교육을 대상, 내용, 방법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변화를 제시하여, 특히 노인 대상 교육에 관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년층, 어르신, 시니어 등 노년층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관점으로 생산되었다. 그 중 류윤희(2011)⁷⁾는 인생의 주기 중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한 언급과 변화하는 노년층의 특징에 주목하여 문화소비자로서의 노년층을 다루고 있다. 류윤희는 최근의 노년층들은 더 이상 전형적인 타입에 맞지 않으며 이전 세대들보다 더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계층으로 독립적이며, 그들의 개인적 성장기회를 찾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⁸⁾ 이 연구를 통해 노년층의 변화를 감지하고 노년층의 특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동적 참여자 보다는 전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원하는 대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과 노인에 대한 이후 연구들은 고령화 사회와 노년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사회와 개인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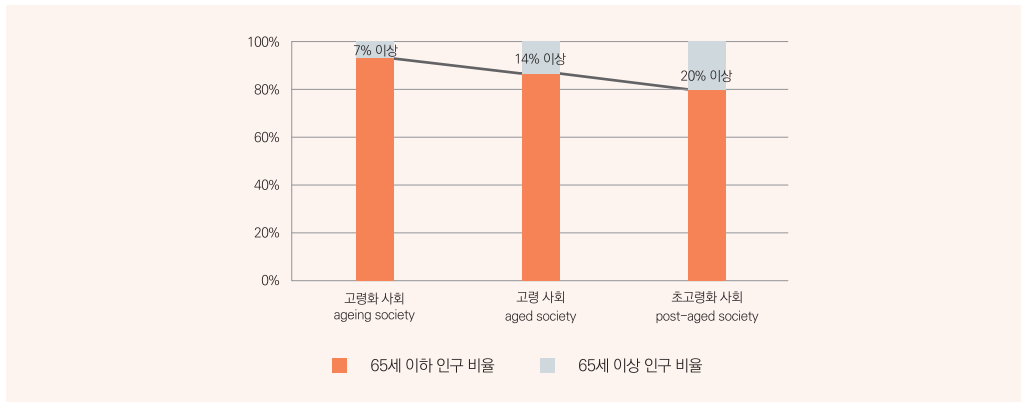
지난 2017년 9월 3일 기준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인구 5,175만 3,820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02%(725만 7,288명)을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⁹⁾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기존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까지 24년이 걸렸고, 서구 선진국들 중에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 걸렸다.¹⁰⁾

7) 류윤희, 「문화자본이 노년층소비자의 박물관 경험에 미치는 영향」(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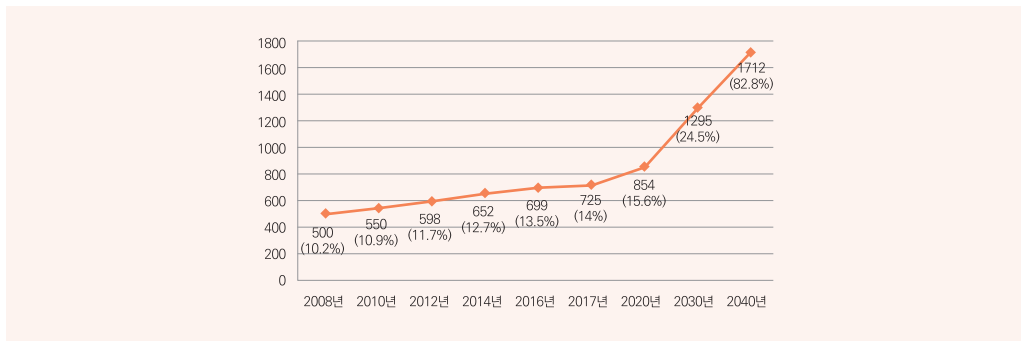
8) 류윤희, 앞의 논문, 2011.

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자체 혁신사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을 찾다」(2017.11.13.보도)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0148&cid=43667&categoryId=43667> accessed dt..Sep. 1, 2018



도 2. UN 기준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사회변화



도 3. 65세 이상 인구 추이(단위: 만명, 괄호는 총인구 중 비율), 통계청

65세 이상 인구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¹⁾ 노년층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생활과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의 생활과 교육의 수준도 향상하게 되었다. 노년층의 교육 수준 향상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 수준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¹²⁾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상식만으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은 노년층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¹³⁾ 또한 노년기에 있어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교류 등의 상호작용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

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2017.9.4.보도)

12) 원금옥, 「고령화 사회, 유물로 만나다」, 『사회 속 박물관, 박물관 속 사회』(2011), p.32.

13) 이은영, 「노년층을 위한 박물관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20.

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¹⁴⁾

이런 면에서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박물관은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정신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자존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¹⁵⁾

III. 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1. 노년층 대상 교육의 흐름

박물관의 성인 대상 교육의 시작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1949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1971년 관원을 위한 토요강좌 개설, 1977년에는 정기적인 박물관 특설강좌를 만들어 박물관 관원들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했다.¹⁶⁾ 이후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열어 1987년에 노인 대상의 ‘박물관 노인학교’가 처음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강좌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과 건강, 전통문화 이론, 문화영화관람, 고적답사 등의 과정을 11주에 걸쳐 주 2회, 66시간의 강의를 들은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 것과 다른 기관의 노인대학과는 차별화된 과정과 운영에 만족하였다.¹⁷⁾ 이후 박물관 노인학교(1987~1992), 박물관 노인문화강좌(1993~1994), 노인문화강좌(1995~1999), 은하문화학교(2000~2010) 등 프로그램명이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으며 내용도 강좌, 답사, 자치활동, 학습발표회 등 다채롭게 운영되었다.

강좌 프로그램의 경우 2005년 용산 개관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토요문화강좌(토요문화체험교실)’, ‘은하문화학교’, ‘여성문화교실’ 등을 2006년까지 운영하다가 유사한 성격의 강좌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아 2007년부터 매주 수요일 ‘은하문화학교’로 통합, 운영되었다. 다음해인 2008년 하반기에는 다시 토요일 강좌 프로그램이 부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인문학 명사 토요일특강’을 개설하였고, 후에 ‘토요일 오후, 인문학 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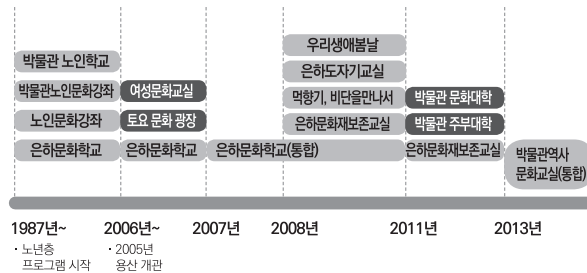
14) 이정복, 「평생교육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

15) 원금옥, 위의 글, p.32.

16) 이지원, 「박물관 성인교육 역사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27.

17) 이지원, 위의 논문, p.57.

수강 대상을 세분화하면서 ‘박물관 주부대학’, ‘박물관 문화대학’, ‘은하박물관학교’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이 되면서 세분화되었던 대상을 다시 통합하고 ‘박물관역사문화교실’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노년층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우리 생애 봄날!’, ‘먹향기 비단을 만나서’, ‘은하 문화재 보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 되었다.¹⁸⁾



도 4. 노년층 대상 교육의 흐름(검정색은 강의식 프로그램의 통합 전 프로그램)

2.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의 현황

이전의 노년층 프로그램이 일방적 전달식의 강의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참여자 중심의 강좌, 활동,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 방식의 적용과 시도는 한국사회가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적인 요인과 꾸준한 노년층의 방문,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 등 내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여 노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노인에 의한, 노인에 관한¹⁹⁾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현황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수는 적을 수 있으나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성인 프로그램의 참여자 분석도 더욱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18)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10년』(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5), p.18.

19) 한정란, 『노인교육론』(서울: 학지사, 2015).

1) 박물관에서 쓰는 나의 이야기

①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박물관에서 쓰는 나의 이야기
- 대상: 65세 이상 노년층, 회당 25명 내
- 기간: 2018. 9~11월(3주 연속 참여)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 목적: 박물관 문화예술 교육 참여로 '품위 있는 노년의 삶' 구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교육기관으로 고령화 사회진입에 대응하는 박물관 교육 기능 확대 목적
- 내용: 전시 관람과 강의를 듣고 사진, 글, 그림 등으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해 보는 자서전 만들기
- 비용: 무료

② 세부 내용 및 특징

65세 이상 노년층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유물에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여 자서전 형태의 글을 써 보는 내용으로, 2017년 9월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과 꾸준한 노년층의 방문,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 등이 결합되어 기획·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에 운영한 '우리 생애 봄날!'처럼 유물을 통해 노년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비슷하지만 약 10여 년간 교육 대상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 점은 노년층이 증가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은 1주에 한 번씩 3주 연속으로 운영하였으며, 큰 주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었다. 유물로 본 선인들의 기록 강의, 버킷 리스트 작성, 유물의 이야기로 전시품 보기,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 보기 등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공감과 소통으로 접근하여 특별하고 의미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 본격 운영하기 전 2017년 12월 3회 시범운영 결과 약 94%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으며, 모든 참여자가 재참여 의사를 나타냈다.²⁰⁾ 2011년 노년층 대상의 '은하박물관학교'가 2013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로 통합된 이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흐름을 통해 살아온 시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노년과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 2017년 노년층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보고 자료

표 1. '박물관에서 쓰는 나의 이야기' 운영 내용

	소주제	내용	
1일	나는 전설이대 (과거: 추억 소환, 회고)	인사	- 출석 확인 및 일정 소개
		강의 I	- 유물로 남긴 선인들의 기록
		'나'	- 나는 누구인가, 원(原)가족 이야기 - 나의 살던 고향은, 내 청춘의 꿈 등
2일	나아, 내 안의 경계를 넘어 (현재: 지금 여기서의 삶)	전시감상	- 유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전시 유물) : 인종의 시호를 올리며 지은 글, 복령궁주 묘지명, 한벽루 시, 조선의궤 등
		'공감'	- 행복한 후반생(後半生)을 위한 실천 - 잊을 수 없는 사람들 -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체험	- 나는 이런 사람(나의 손 그림, 이야기 나누기)
3일	내 주머니 속의 꽃씨 (미래: 남아있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마무리)	'만남'	- 동화책 속 우리 이야기 -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 - 나의 이야기 기록
		'나눔'	-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소감 나누기



도 5. 유물로 남긴 선인들의 기록 강의



도 6. 버킷 리스트 작성

2) 박물관 어르신 사랑방

①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박물관 숲과 유물 이야기
- 대상: 60대 노년층 30명
- 기간: 2018. 6~7월 교육 및 실습, 10월 시범 시연(주말)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및 야외 숲, 석조정원 일대
- 목적: 노년층이 다양한 방법으로 박물관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 구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내용: 야외조각공원 전시품 해설과 숲 이야기를 접목하여, 일정 기간 숲 해설 교육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에게 야외 석조물과 곁들여 숲 해설을 시연하는 프로그램
- 비용: 무료

② 세부 내용 및 특징

이 프로그램은 한국숲해설가협회²¹⁾와 협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박물관의 조경에 대한 관심과 야외석조미술품 해설, 그리고 노년층 대상 교육의 새로운 접근법 필요 등 안팎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조화가 되어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2005년 용산 개관 준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조경은 현재 사계절 매우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식물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보와 보물이 가득한 야외전시의 석조미술품 전시 해설도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한국숲해설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으로 탄생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참여자의 역할이 바뀐다는 특징이 있다. 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하다가 다시 교육의 운영자가 되어 참여자들을 리드하게 된다. 박물관 야외 전시장의 숲과 석조미술품에 대해 강의와 현장 설명을 교육 받은 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다음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의 변화는 재능 나눔의 기회로써 노년의 삶에 대한 자긍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다.

21) (사)한국숲해설가협회는 1998년 '자연환경안내자협회'로 발족하여 숲해설을 처음 시작했으며, 2000년 '숲해설가협회', 2012년 '(사)한국숲해설가협회'로 성장하였으며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이다.

(<http://www.foresto.org>, accessed dt..Sep. 11, 2018)

표 2. '박물관 숲과 유물 이야기' 운영 내용

회차	분야	내용	비고
1회	숲 이야기	숲과 사람 - 숲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론
2회	강의Ⅰ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이야기	이론
3회	강의Ⅱ	야외조각공원 전시품 이해1	이론
4회	목본	이야기가 있는 나무	이론
5회	강의Ⅲ	야외조각공원 전시품 이해2	이론
6회	초본	초본현장 - 박물관의 풀꽃 알기	현장
7회	목본	목본현장 - 박물관의 나무 알기	현장
8회	생태공예/놀이	자연물 만들기 및 놀이	현장
9회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	실습
10회	숲해설의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숲 이야기	현장



도 7. 유물로 남긴 선인들의 기록 강의



도 8. 버킷 리스트 작성

3) 문화 나눔, 꿈 드림

①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박물관 명품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 대상: 어르신 생활시설(양로원), 회당 20~30명 내외
- 기간: 2018. 7~11월
- 목적: 희망계층을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매개로 하는 교육을 통해 상호 소통 및 이해의 방법 다양화 목적
- 내용: 박물관 명품 감상 느낌과 연계한 나의 이야기 꺼내보기, 명품카드에 기록을 남기고 나의 명품카드 보관함 만들기 등
- 비용: 무료

② 세부 내용 및 특징

찾아가는 박물관의 두 번째 시리즈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첫 번째 시리즈와는 달리 박물관에 오기 힘든 분들께 찾아가 박물관의 명품 감상(영상)과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을 위한 교육으로 어르신이 많은 양로원을 방문하며, 영상 감상,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기, 보관함 만들기, 포토존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여가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 '박물관 명품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운영 내용

소요시간	내용
10분	Ⅰ. 도입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국립중앙박물관 알아보기(영상)
30분	Ⅱ. 전개-1 • PPT 영상으로 만나는 명품 감상(10여점) - 금관, 반가사유상, 경천사지10층 석탑, 청자, 백자, 김홍도 풍속화 등(일부 복제품 준비) • 알고 있는 유물 이야기, 호감 있는 유물 찾아보기 • 유물 감상 느낌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기 • 유물이 담긴 명품카드에 감상 느낌 써(그려)보기
50분	Ⅲ. 전개-2 • 나만의 (명품카드) 보관함 만들기 - 나무상자에 전통 문양지를 활용해서 꾸며 보기 - 개성이 담긴 보관함(명품집) 함께 감상
30분	Ⅳ. 기억이 담긴 한 컷, 마무리 • 유물 포토존에서 박물관 추억 남기기



도 9. 박물관 명품 감상



도 10. 나의 명품카드 보관함 만들기

IV. 박물관의 역할 모색

국립중앙박물관은 1949년 교사 대상 교육, 1970년대 관원을 위한 강좌를 만든 이후 1980년대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²²⁾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1987년에 노인 강좌로 시작하는데 이는 ‘노인’을 교육 대상으로 분리·인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노인강좌의 개설 이후 꾸준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일방적 강의식 뿐만 아니라 체험과 활동을 더한 방식의 교육도 이루어졌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참여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방식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에 의한,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은 앞으로 변화하는 노년층에 대비한 박물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환경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박물관·미술관은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담당한다. 두 번째로 박물관·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요소의 교육은 노인층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연구된 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을 경험한 노인계층들은 자존감 회복과 가족관계 개선,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는 노인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정서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기억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²³⁾

이렇듯 박물관은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며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적 역할이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계층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시점에서²⁴⁾ 노년층을 교육의 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평등한 교육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여가생활로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문화적 역할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 즉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22) 이지원, 위의 논문, p.27.

23)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서울: 문음사, 2010), p.146.

24) 박민진, 「고령사회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87.

아니라 ‘어떻게 오랫동안 사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²⁵⁾ 여가활동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한 연구자는 여가활동에 대해 선택할 때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것,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환경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조건들을 볼 때 박물관은 많은 조건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으로 오는 행위는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위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위대한 가치가 담긴 오브제를 보고 지성과 감성을 충족하며 스스로 경로를 선택하여 전시를 보고 교육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활동은 노년층의 여가활동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장소로써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평등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이다. 누구나 남녀노소 조건 없이 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이다. 박물관은 인류의 유산을 전시, 연구, 교육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박물관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박물관은 교육 및 연구와 향유를 위해 인류 사회의 유형 및 무형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소통하여 전시하는 사회와 사회의 개발에 공헌하는 공중(公衆)에 개방된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특히 ‘인류사회의 유산’을 다루는 ‘공중(公衆)에 개방된 비영리’기관이라는 점에서 박물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²⁷⁾ 이와 같이 박물관은 기관이 가진 공공성을 기반으로 평등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V. 맺음말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대의 노인들은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들의 문화적인 욕구

25) 손동기, 「노인의 여가생활과 공공문화서비스」, 『2016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2016), p.2.

26) 이보아 역, 『관람객과 박물관』(서울: 북코리아, 2008), pp.47-48.

27) 임기환, 「한국 박물관에서 공공성의 의미」, 『박물관교육연구』(2018), p.20.

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 문화 시설도 열악한 실정이다. 노인의 기호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충분치 않아 따라서 노인들은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²⁸⁾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박물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내용적인 측면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노년층(노인) 대상 교육의 흐름과 현황을 알아보았고, 박물관 역할을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역할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 노년층 프로그램이 일방적 전달식의 강의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참여자 중심의 강좌, 활동,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 방식의 적용과 시도는 한국사회가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적인 요인과 꾸준한 노년층의 방문, 노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 등 내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하여 노인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노인에 의한, 노인에 관한²⁹⁾ 교육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이 단순한 문화적 지식의 전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³⁰⁾ 이를 위해 노년층이 가진 특징들은 새로운 시도에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일상생활을 통한 많은 사회적 경험, 원하는 사항들을 습득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 등은 노년층 교육을 구성함에 있어 참여자로서뿐만 아니라 기획자·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노년층’을 주제로 한 다각적 접근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박물관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과 노년층과의 접점, 유관 기관과의 차별성, 새로운 노년층의 진입경로 개척, 운영 방식의 변화 등 아직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홍숙정, 위의 논문, p.88.

29) 한정란, 『노인교육론』(서울: 학지사, 2015).

30) 이지원, 이병준, 「한국의 박물관 성인교육의 역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2013), p.117.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17년 국립박물관 연보』, 2018.
- 국립중앙박물관, 2017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결과 보고 자료, 2017.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10년』, 통천문화사, 2015.
- 김지영, 『박물관의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류윤희, 『문화자본이 노년층소비자의 박물관 경험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민진, 『고령사회의 박물관·미술관 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손동기, 「노인의 여가생활과 공공문화서비스」, 『2016 한국여가문화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16.
- 원금옥, 「고령화 사회, 유물로 만나다」, 『사회 속 박물관, 박물관 속 사회』, 2011.
- 이보아 역, 『관람객과 박물관』, 북코리아, 2008.
- 이은영, 『노년층을 위한 박물관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정복, 『평생교육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지원, 『박물관 성인교육 역사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지원, 이병준, 「한국의 박물관 성인교육의 역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2013.
- 임기환, 「한국 박물관에서 공공성의 의미」, 『박물관교육연구』, 2018.
-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 홍숙정, 『박물관·미술관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0148&cid=43667&categoryId=43667> accessed dt..Sep. 1, 2018
- <http://www.foresto.org>, accessed dt..Sep. 11, 2018

Abstract

Older Persons' Ways of Learning and Expected Roles of Museums

Jeonghun Moon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operates a lecture program every Wednesday that is open to anyone interested in the humanities. This program developed out of the lectures for adults and senior citizens (e.g., Eunha Culture School) which began before the museum relocated to its present site in Yongsan. After a process of evolution over the years, it has been held under the name “History and Culture Lectures” since 2013. It attracts the largest number of attendees per session among all learning programs und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History and Culture Lectures are particularly popular among senior citizens, who make up about 76 percent of total attendees. Roughly 68 percent of the senior participants have attended the lecture program for at least two years, including the lectures held prior to the relocation to Yongsan, and about 99 percent of them report an intention to continue attending the program. Thes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active participation by senior citizens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In that case, what roles should a museum play for these regular audiences? How should museums view senior visitors? How can museums cope with changes in society? All of these questions require research and new approaches from diverse perspectives.

In September 2017, Korea officially entered aging society status according to United Nations standards, which define a society as aging when those over 65 occupy at least 1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Korea's senior population has been growing since at least 2008 when the population census for citizens with resident registration came to include an advanced statistical system. In addition to the growth of the senior population, the country's overall standard of living and level of education have also improved, bringing substantial changes to older people's daily lives and their preferences for enjoying culture. Greater significance is being attached to old age

than ever before. As centers for lifelong study, museums need to develop and promote education programs on art and culture targeting senior citizens, thereby improving quality of life of older people and better satisfying their educational needs. This will help boost their self-esteem as well. If museum education is to offer a forum for exchanging diverse views and considerations rather than merely delivering knowledge on culture, museums must turn toward new approaches. Older citizens can help vitalize this project based on their unique resources, such as diverse experience gained from daily life and a strong motivation to learn what they wish. Using these qualities, seniors can engage in museum education programs as both attendees and program planners or developers. They can help museums take a multilateral approach wh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senior citizens. Museum education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many tasks to address, such as identifying an interface with senior citizens, differentiating their programs from those provided by similar institutions, finding ways to attract senior citizens, and adjusting their methods of operation. In this sense, museum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should be developed over the long-term based on systematic preparation.

Keywords: Museum, Museum education, Aging society, Aging population, Senior education, Senior citizens,